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빌립보서2:1-11)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이해되고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은 그 자체로서 귀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도 구원 안에 들어있다. 성경은 당연히 구원의 책이기도 하고 전도의 책이기도 하다. 답을 가진 자가 일을 하면 기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다. 바울이 가진 복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어려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것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일 것이다. 전도는 일이 아니고 축복이고 답이라고 말한다. 복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복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시작한 때부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것 아닌가? 이것을 전해보면 그때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전도가 일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이다. 복음운동에 인생을 드린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정복하는 인생이 된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런 사실을 기록했다. 전도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무조건 하면 지속이 안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있다. 억지로 하면 힘이 들지만 복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힘이 나와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면 살아난다.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있기를 바란다. 제자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도가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제자가 되느냐 아니고 눈이 열릴 때 제자가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나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천국 같은 삶을 세상에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것은 복음의 눈이 계속 열린다. 결국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을 때를 상상해보면 알게 된다. 그때 남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몇주전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봤다. 같은 뜻이다. 5절에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어떤것인지 6절부터 설명을 하셨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였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은 너희도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눈을 가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단한 학자였지만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태로 살았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2: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고백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 다음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런 그림이 있었기에 주님이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안 것이다. 언약이 된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이 된 것이다. 이 그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마음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이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중앙에 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에게 깊은 언약이 되어야 한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매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누림이고 사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누림이다. 여기서 모든 응답과 힘을 얻는 것이다. 이 힘으로 사단을 꺾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는 답이 이것이라는 결론이 난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승리하고 정복할수 있는 답이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권세이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것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권세가 나타난다. 이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이 마음안에 들어 있는 영적인 그림이다. 우리는 24기도 하기를 다 원한다. 이것이 24의 근본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25누리기를 원한다. 여기서 다 나온다. 사도바울의 인생을 보면 누구나 인정한다 여기에서 사도바울의 인생이 다 나왔다는 것을 우리 인생 치유가 여기서 나온다. 그가 죽으신 십자가의 비밀에서 다나온다. 237도 팀사역 전도도 하나님의 주신 현장전도도 나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깨달음과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통하기에 그렇다. 이 언약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그림을 가슴에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 근본이다. 거기에 마음에 담긴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다. 사도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표현한 사도바울의 생각을 해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쯤 가 있을까? 과연 그 마음안에 있는 그림이 어디쯤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이 이 안에 있기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이 안에 많은 의미가 숨겨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가를 보기를 원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복종하고 죽으신 것이다. 그의 사명과 그의 겸손이다. 십자가의 죽으신 사명은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 왜냐면 이것 없으면 아무도 사단의 저주에서 나올 수 없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근본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핵심은 주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다. 네가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우리 마음에 근본마음이다. 겸손도 귀하지만 죽으시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 만일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첫 번째이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신 그 마음을 너도 가지라. 자신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갈2:20절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증거다. 생각해보라. 사도바울은 어떤 마음 언약 어느 정도 그의 죽으심이 그 마음에 살아있을까? 우리도 이 마음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통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은 겸손이다. 겸손은 언약은 아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언약을 막을 수 있다. 사명에는 강해도 행위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과 하나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밥을 먹으면 배부른다. 밥을 안먹고 배

부르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답답하신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이 물잠길 때 끊어졌다. 그때 만일 제사장 들이 발을 담글까 말까 했다면... 저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했다.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설교들으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끊어졌다 그러니 담거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그러나 발을 담근다고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라고 생각했다. 고민하다 어느날 발견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담근것이지 나는 말씀이 없으니 안해도 된다고 일단 정리하고 상당한 시가이 흘렀다.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었다. 고민을 했다. 어느날 들어왔다. 네 한테도 이미 말을 해놓았잖아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잖아 그 외에도 성경에 네게 약속한 것이 한두가지인가?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주었으니 너도 그 말씀을 받았다. 제가 할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셔야지요. 그때, 왜 힘이 없는가를 알게 되었다. 영적인 힘이 없었다. 하면된다는 확신이 없었다. 왜냐면 복음을 몰라서 나중에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알고 난 뒤에도 또 남은 문제는 복음을 누리지 않고 언약을 잡지 않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많은데..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실제 삶속에서는 언약을 안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치유 받았다 복음치유가 근본이다. 복음치유가 되어야 다른 것도 치유 받을 수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자꾸만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안된 것이다. 많이 되어가고있지만 아직도 사실적으로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정복

오늘 말씀9절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였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라는 뜻이다. 최고로 높은 이름 권세를 주셨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아래 있는 모든 저주 받고 있는 자들을 합해서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믿지는 않지만 예수는 주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정복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늘에 있는것이나 하늘아래 땅에 땅아래 있는 것 구별없이 그리스도 이름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약속이다. 언약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문제를 정복,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을 믿고 세상에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것이고 그의흘리신 피의 이유이다. 너는 정복하라 다른 이유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 때문이다. 언약으로 잡고 오늘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이미 다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흘림으로 이제는 네가 하면돼. 기도해 응답올거야 네가 복음을 아냐? 내가 죽음이 너와는 무슨상관이냐 언약을 잡았냐 어떻게 사냐 네 생각대로 살면 사단이 무너지겠냐 그게 되면 내가 왜 죽겠냐 그냐 네 뜻대로 살라고 하겠지.. 십자가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세상에 눌리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눌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눌리고 싶은가? 복음안에서 하면된다. 나는 끝냈다 네가 하면 되는 모든 것, 조건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냈다. 이제는 공이 네 한테 넘어갔다 네 선택에 달려있다. 내보고 원망 옆사람에게 원망하지 마 네게 공이 있어. 눌리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군요 해야 한다. 이유는 무엇이든지 세상에 무엇이든지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방되고 정복되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 내 피이고 권세 아니냐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이다. 이미 말씀드렸다. 성경에도 다 써놓았고 매주 계속 이야기했다. 문제에 잡혀있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고 자기 결정이다. 오늘 말씀해놓았다. 오늘 본문 가지고도 능히 방을 누릴수 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누릴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에 눌린 것이다. 그게 또 하나의 기도제목이다. 여하튼 필요 없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된다. 하느냐 마느냐는 내게 결정권이 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갔자만 가정 총무가 되었다. 여전히 노예이지만 정복한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정복한 것이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을 정복한 것이다. 다른 죄수와 다르다. 정복한 것이다. 결국은 왕과 나라를 정복했다. 자기가 오히려 왕이 된 것이다. 주위의 많은 나라를 살렸다.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을 기록했는가 너도 요셉처럼 하면 이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요셉처럼 사는가를 신경 쓰면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진짜로정복을 했다. 이런 요셉한테 개인 정복에 대하여 물을 것도 없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시대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눈 열리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된다. 상황은 필요없다. 땅끝이다. 내가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면 끝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보화 모든 지식 지혜가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한다. 믿으시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한다. 자존심이 상해도 눌려서 있으면 안된다.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 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했으니 이 피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념이 없으니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이것이 되어졌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다시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라. 언약에 대하여 눈을 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눈을 딱 뜨고 세월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시간표가 온다. 차츰 누리고 있으면 정복을 한다. 정복은 영적인 정복을 말한다. 문제가 있어도 필요없어 정복이다. 그것이 진짜 정복이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 문제가 살아진다는 것은 죽기까지 없을 것이다. 문제에 잡혀 있으니 그렇다. 기준은 언약에 두고 말씀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정복이다. 기준이 문제에 두면 절대 정복을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한번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한번도 증인도 못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오히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주저 앉힌다. 그래도 구원은변함이 없다. 이렇게 살고 싶으가? 무엇이 기준인가 언약이 기준이 되었나?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평안과 감사와 치유가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귀한 말씀이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정복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 나의 상황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듬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네가 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네 인생을 죽일 마음이 있느냐 이말이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고난은 말씀을 받을 기회이다. 듣는 것은 같은데 다르다. 말씀이 들어와 내게 멈추면 그 말씀대로 역사 일어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단어가 들어있다. 말씀은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하나하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다. 지난주에 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너는 네가 이루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다시한번 답이되고 승리하기를 축복한다.